

- 주요 뉴스: 연준 주요 인사, 적극적 금리인상 강조,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2일 연속 하락
 - 미국 3월 생산자물가, 12년래 최고치. 코로나 바이러스,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영향
 - 중국 국무원,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자금준바울 인하 가능
 - 일본은행 총재, 완화정책 유지할 방침.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경계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가능성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

주가 상승[+1.1%], 달러화 약세[-0.5%], 금리 하락[-2bp]
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금리상승 우려 완화, 일부 서비스 업체 실적 기대 등이 반영
유로 Stoxx600지수는 에너지 관련주 강세와 영국 물가상승 우려가 맞물리며 보합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ECB의 통화긴축 전망에 따른 유로화 강세 등으로 배경
유로화가치는 0.6% 상승, 엔화는 0.2% 하락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인플레이션 둔화 가능성 등이 원인
독일은 미국 채권시장과 유사한 이유로 2bp 하락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224.1원, -3.91원) 0.4% 하락, 한국 CDS 하락

		4/13일	4/12일	전일대비			4/13일	4/12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446.6	4,397.5	1.12%	국채 금리 10y	미국	2.70%	2.72%	-2bp
	유럽	456.78	456.65	0.03%		독일	0.77%	0.79%	-2bp
	중국	3,186.8	3,213.3	-0.82%	CDS 5y	한국	31bp	32bp	-1bp
	일본	26,843	26,335	1.93%		중국	68bp	69bp	-1bp
	한국	2,716.5	2,666.8	1.86%	위험 지표	EMBI+	-	385	-
환율	달러지수	99.84	100.29	-0.45%		VIX	21.82	24.26	-10.06%
	유로화	1.0888	1.0828	0.55%		WTI유	104.25	100.60	3.63%
	엔화	125.62	125.38	-0.19%	원자재	구리	471.2	471.0	0.05%
	위안화	6.3682	6.3657	-0.04%		금	1,977.8	1,966.8	0.56%
	원화	1,228.0	1,236.2	0.67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연준 주요 인사, 적극적 금리인상 강조.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2일 연속 하락

- 세인트루이스 연은 블라드 총재는 금리인상 없이 물가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. 40여년 만에 최고 수준인 인플레이션의 완화를 위해서는 경제활동을 억제해야 하며, 지금은 보다 공격적인 행동이 요구된다고 강조
- 월러 이사도 미국 경제는 큰 폭의 금리인상을 감내할 수 있기에 5월 0.5%p 금리인상을 지지한다고 언급. 6,7월에도 각각 0.5%p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, 연말까지 가능한 신속하게 중립금리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첨언
- 하지만 정책금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2년물 국채금리는 4/11(월) 이후 2일 동안 15bp 하락. 선물시장에서 추정하는 연말까지의 정책금리 추가 인상폭 역시 주초 대비 0.25%p 하락(2.25%→2.00%)
- 이는 3월 소비자 및 생산자물가의 큰 폭 상승에도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국채 매입이 증가했기 때문. Capital Economics의 Andrew Hunter는 연준 인사들의 인플레이션 완화 전망이 다소 과도하게 비관적이라고 지적
- 일부에서는 연준의 금리인상 전망이 채권가격에 이미 대부분 반영되어 있다는 의견을 피력. Oanda의 Edward Moya는 향후 연준의 금리인상 전망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는지 시험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재무장관, 중국의 러시아 지원에 경고. 국제사회의 경제 대응 초래할 소지

- 옐런 장관은 중국이 러시아와의 특별한 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시키고 있는데,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. 향후 국가안보와 같은 국익을 판단할 경우 경제문제를 분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

■ 미국 3월 생산자물가, 12년래 최고치. 코로나 바이러스·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영향

- 3월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비 11.2% 올라 '10년 11월 이후 최고치. 전월비 기준으로도 1.4% 올라 '09년 이후 최고 수준. Oxford Economics의 Mahir Rasheed는 금년 하반기가 되어야 생산자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

■ 주요 경제연구소,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중단 시 독일은 '23년 마이너스 성장 예상

- 5개의 주요 경제연구소(RW, DIW, IFO, IFW, IWH)는 러시아에서 에너지 수입이 불가능하면 금년 성장률 전망의 하향 조정(4.8%→2.7%)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 제시. 또한 내년에는 -2.2%의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

■ 중국 국무원,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지급준비율 인하 가능

- 해당 조치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영향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평가. 또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차입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.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4/15일 인민은행의 중기대출제도(MLF) 금리인하를 예상

■ 중국 3월 수입, 코로나 19 봉쇄 조치 등으로 전월비 감소. 수출은 예상치 상회

- 3월 수입은 전년동월비 0.1% 줄어 '20년 8월 이후 첫 감소를 기록. 코로나 19 봉쇄 조치 등으로 원유, 구리 등 주요 원자재 수입이 큰 폭 감소. 반면 수출은 전년동월비 14.7% 증가. 전월(16.3%) 대비 증가세 둔화되었으나 예상치(13.0%) 상회
- 노무라 증권은 코로나 19 봉쇄에 따른 생산활동 둔화 및 관세당국의 업무 지연 등으로 4월 수출과 수입은 모두 감소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

■ 일본은행 총재, 완화정책 유지할 방침.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경계

- 구로다 총재는 에너지 가격 급등 영향으로 인플레이션 심화 가능성이 매우 높고, 기업은 비용 증가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평가

■ 캐나다 중앙은행, 정책금리 0.5%p 인상. 4월에 대차대조표 축소 시작

- 통화정책회의에서 정책금리를 0.5%p 높은 1%로 제시. 맥클렘 총재는 정책금리가 중립금리 수준(2~3%)에 도달해야 하며, 필요 시 행동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언. 또한 이달 말 자산매입을 종료하고 대차대조표 축소를 시작하겠다고 발표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4/13 현지시각 기준)

- 영국 3월 소비자물가(전년동월비): 7.0%, 2월(6.2%), 예상치(6.7%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4/14 현지시각 기준)

- ECB 통화정책회의, 미국 3월 소매매출 및 4월 2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- **중국 국채의 투자수요, 미국·중국 간 수익률 스프레드 축소로 감소할 가능성 - WSI**
(U.S. and Chinese Bond Yields Converge, Reversing a Decadelong Pattern)
 - 과거에 미국과 중국의 10년물 국채수익률 스프레드가 2~3%p 상회하였으나 최근에는 0.1%p 내외로 급격히 축소되면서 중국 국채의 투자 유인이 약화. 이는 미국의 금리인상 전망과 중국의 경기부양을 위한 완화적 정책기조 등에 기인
 - 일부에서는 중국 당국의 경기부양 노력으로 국채공급 증가에 따른 수익률 상승을 전망. 그러나 Natixis의 Garcia Herrero는 중국 경기의 둔화와 중국 국채 투자 관련 위험을 고려 시 외국인 투자자의 귀환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
- **공급망 문제, 경제주체들의 적극적인 공조가 해법 - Financial Times**
(The supply chain crunch requires co-ordinated solutions)
 - 공급망 불안은 기업과 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, 우크라이나 위기로 중소기업, 개도국의 성장 등에 치명적 여파를 초래. 이처럼 경제적 불확실성 증대에도 정부, 민간, 국제기구는 공급망 문제를 해소하는데 비협조적
 - 전세계 공급망은 코로나 19 대유행 이전부터 악화된 상태. 자동화 확대는 항만 작업 효율성을 높였지만, 더 중요한 것은 노동조건과 무역거래 관행 등의 개선. 공급망의 원활화는 이와 같은 구조적 취약성 극복이 과제
- **미국의 물가상승률, 새로운 정상수준은 4%대가 될 전망 - 블룸버그**
(Inflation's New Normal Will Be 4%. Get Used to It.)
- **연준,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증폭 시 시장개입 필요 - Financial Times**
(Central bankers cannot afford to ignore the pain in commodities)
- **중국 당국의 신용확대, 코로나 관련 봉쇄조치 등으로 실효성은 제한적일 소지 - 블룸버그**
(China's Covid Outbreak Highlights Weak Lending as Borrowers Hold Back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